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이
고등학생의 다중지능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성 영 실

2012년 8월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이 고등학생의 다중지능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김 성 봉

성 영 실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8월

성영실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년 8월

<국문 초록>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이 고등학생의 다중지능에 미치는 영향

성 영 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김 성 봉

본 연구는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과 다중지능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의사소통 유형이 다중지능 하위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성별에 따라 의사소통 유형은 어떠한가?

둘째, 성별에 따라 다중지능 하위영역은 어떠한가?

셋째,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은 고등학생의 다중지능과 어떠한가?

넷째,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은 고등학생의 다중지능에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도구는 의사소통 측정 도구로 Barnes & Olson(1982)이 제작한 부모-청소년 자녀간 의사소통 척도(PACI :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를 김윤희(1990)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다중지능 검사는 문용린 외(2001)가 개발한 중·고등학생용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 본 논문은 2012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독립표본 t검증, 피어슨의 상관관계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에 따라 의사소통 유형에는 차이가 없지만, 다중지능 하위영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자는 여자에 비해 신체운동지능에서만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반면, 여자는 남자에 비해 음악지능,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반면에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자기이해지능, 자연친화지능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의사소통 유형과 다중지능 하위영역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개방형 의사소통은 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 논리수학지능,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 자기이해지능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제형 의사소통과 대인관계지능간에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의사소통 유형이 다중지능 하위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개방형 의사소통은 다중지능 하위영역인 8개 영역 중 자연친화지능을 제외한 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 자기이해지능에 영향을 미치는데, 개방형 의사소통을 할수록 다중지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문제형 의사소통은 다중지능 8개 영역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은 다중지능 하위영역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지능이 유전적인 영향과 환경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다중지능의 발달에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의사소통시 개방적 의사소통으로 해야 할 것이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및 가설	4
3. 용어 정의	4
II. 이론적 배경	7
1. 의사소통	7
2. 다중지능	14
3. 선행연구 고찰	24
III. 연구방법	30
1. 연구대상	30
2. 연구도구	31
3. 자료처리	33
IV. 연구결과 및 해석	34
1. 성별에 따른 의사소통	34
2. 성별에 따른 다중지능	34
3.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다중지능과의 상관관계	36
4. 의사소통 유형이 다중지능에 미치는 영향	37
V. 논의 및 결론	40
참고문헌	45
Abstract	52

부 록 55

표 목 차

<표Ⅲ-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30
<표Ⅲ-2> 의사소통 유형 하위영역과 신뢰도	31
<표Ⅲ-3> 다중지능 하위영역 및 신뢰도	33
<표Ⅳ-1> 성별에 따른 의사소통	34
<표Ⅳ-2> 성별에 따른 다중지능	35
<표Ⅳ-3> 의사소통 유형과 다중지능과의 상관관계	36
<표Ⅳ-4> 의사소통 유형이 다중지능에 미치는 영향	38

부 록 목 차

<부록> 질문지	57
----------------	----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는 부모와 자녀의 소통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가출, 학업중단, 자살충동 등 청소년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맞벌이 부모의 증가, 가족해체, 입시위주의 제도권교육 등으로 인해 가족이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청소년의 무한한 잠재적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부모-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핵심적인 요소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2011년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조사한 청소년생활실태조사에 의하면 제주도지역인 경우 35.7%의 청소년들이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고 19%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생활실태조사, 2011),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발표한 3년간 고교 학업중단 청소년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지역의 경우 지난 2007년 342명, 2008년 393명, 2009년 462명으로 매년 증가했다(한라일보, 2010. 9. 27).

또한 여성가족부가 2011년 가족실태조사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가출의 주요인으로 부모간의 불화(21.3%), 부모의 폭행(13.0%), 부모의 지나친 간섭(10.3%)등 가족적 요인이 59.8%를 차지했다(여성가족부, 2005, 2010, 가족실태조사). 반면, 고민이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는 49.5%가 혼자 해결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친구나 주변의 선배와 상의하는 편이다 24.4%, 가족(부모, 형제)과 상의 하는 편이다 23.9%의 순으로 나타났다(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생활실태조사, 2011).

‘부모가 나를 잘 이해하지 못 하신다’고 응답한 자녀의 비율은 아들 23.6%, 딸이 16.7%로 아들이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 5명중 1명은 부모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청소년들이 부모님께 바라는 내용으로는 46.6%가 ‘나를 좀 더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응답하여(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생활실태조사, 2011),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소통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인간을 가족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가족이란 밀접하며, 가정 내에서의 부모-자녀관계는 주로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며, 이러한 의사소통은 부모-자녀관계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하는 중요한 매개체로서 인간관계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백승미, 2003, 재인용).

박현진(2003)은 부모-자녀 관계의 상호 작용은 의사소통을 통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 속에 내포된 의미와 행동 양식을 내면화시켜 발달시켜 나가기 때문에 부모의 대화하는 방식이나 태도, 내용 등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으며, 김경원(2000)은 부모-자녀관계는 가장 기본적이고 친밀하며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인간관계로 어떤 사회적 관계보다 모든 인간의 행동양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 하였고, 심혜영(1993)은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은 가정생활을 원만하고 행복하게 영위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며 부모-자녀간의 감정을 유지시켜 주고 상호활동을 조장시켜 주며 자녀의 사회화와 성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부모-자녀간 대화부족과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은 부모-자녀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반면, 부모-자녀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자녀로 하여금 자신이 수용된다는 느낌을 주게 되므로 부모의 의사소통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자녀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며(Demo, 1987),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자신을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반대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부정적인 자아태도로 인해서 열등감을 가지며, 소심하고, 비판적이며,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고 했다.

여러 연구들에서 기능적이고 개방적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자녀의 바람직한 인성의 형성과 지적능력의 개발, 창의성의 신장, 사회성 발달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신수정, 1994 ; 김미호, 1989 ; 방문희, 1992 ; 남현주, 1997 ; 이인숙, 1997 ; 백승미, 2003).

부모는 자녀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유능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지만, 양육과정에서 자녀를 바람직하게 키워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자녀를 훌륭히 양육하기 위해서는 양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 기술, 태도를 익혀야 하며, 이런 환경적인 요인은 자녀의 지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Gardner(1997)는 다중지능 특정 영역에서의 탁월한 능력은 유전적, 생물학적 특질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과 복합적인 상호 작용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지적한다. 환경 요인 중 하나인 가정은 인간이 태어난 후 최초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기본적인 행동 양식을 학습하게 해 주는 장의 역할을 한다. 특히 태내에서부터 시작된 부모-자녀의 관계는 자녀의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를 통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민경애(2009)는 다중지능이론을 모든 사람 각각의 지능은 적절한 방법을 통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개발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지능이론이라 했으며, Gardner(1997)는 자신의 강점지능을 발휘 하였을 때 더욱 성공적인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의 다중지능 개발을 위한 부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가정이 학생의 다양한 지적능력을 발견하고 잠재적 계발에 장이 된다는 의미에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자녀의 인성과 지적발달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 지능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적인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할 때 가장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대응방식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상호작용시 의사소통을 통하여 내용과 관계의 질이 달라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이 고등학생의 다중지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의사소통과 안녕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대인관계성향,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및 학업성적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다중지능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보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아동의 다중지능과의 관계, 고등학생의 다중지능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부모양육태도와 아동의 다중지능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가정환경과 다중지능과의 관계에서 보는 것처럼 의사소통과 고등학생의 다중지능과의 선행연구는 그리 많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이 고등학생의 다중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별에 따른 의사소통 유형과 다중지능 하위영역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의사소통 유형과 다중지능의 관계와 의사소통 유형이 고등학생의 다중지능 하위영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봄으로써, 부모-자

녀간의 바람직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기초자료를 제공 하는데 그 목적과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문제 및 가설

연구문제 1. 성별에 따라 의사소통 유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성별에 따라 다중지능 하위영역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은 고등학생의 다중지능과 어떠한가?

연구문제 4.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은 고등학생의 다중지능에 영향을 미치는가?

위와 같은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설정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성별에 따라 의사소통 유형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성별에 따라 다중지능 하위영역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은 고등학생의 다중지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은 고등학생의 다중지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이다.

3. 용어의 정의

1) 의사소통

의사소통이란 사람들 간에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

해 상징적 처리를 사용하여 생각이나, 감정, 정보, 태도, 의견 등을 교환하는 순환적인 상호교류의 과정으로서, 그 안에는 언어적, 비언어적 메시지가 모두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유형으로 Barnes와 Olson(1982)의 분류방식을 채택하여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을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실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개방적 의사소통 유형과 자녀가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의사표현을 주저하고 주제 선택에 조심하며 부모로부터 애정적 표현보다는 비난적 표현을 더 많이 경험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형 의사소통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2) 다중지능

Gardner(1993)는 지능을 ‘문화 속에서 가치가 부여된 문제를 해결하거나 결과물을 창출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Gardner가 제시한 다중지능 하위영역으로는 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 논리수학지능, 언어지능, 공간지능, 대인관계지능, 자기이해지능, 자연친화지능의 여덟 가지 지능이 있는데 이를 통틀어서 다중지능이라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의사소통

1) 의사소통

우리는 타인과의 교류에서 매 순간마다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하면서 살아간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활동에는 의사소통 요소가 존재하며, 그렇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최홍규(2000)는 의사소통에서 전달된 메시지의 내용에 관한 것보다는 메시지의 전달방식이나 전달과정을 중요시하여 의사소통을 다른 사람의 정보 즉, 생각, 의견, 사실, 감정을 교환하는 과정으로 의사소통을 통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정의하였고, 정명희(1998)는 의사소통이란 인간의 감정, 느낌, 태도, 생각 등의 메시지를 언어, 비언어적인 수단을 통하여 상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받는 매개체로서 대인 관계의 순환적인 과정 및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민하영(1991)은 의사소통이란 둘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생각, 의견 또는 감정의 교환을 통해 공통적 이해를 이룩하고 의식이나 태도,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일련의 행동으로써, 상호간의 공통적 이해가 중심이 된다고 하였다.

Cooley(1902)는 의사소통을 통해 인간관계가 성립되고 또 발달한다고 하였고, Gross, Crandall 및 Knoll(1980)에 의하면 의사소통은 사람들 간에 감정, 태도, 사실, 믿음, 생각을 전달하는 과정으로 상호 대화를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를 이해하는 모든 수단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언어적 수단은 모든 언어적 행동과 말을 지칭한다. 언어적 의사소통은 의사소통자가 속한 사회문화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에 대한 개념상의 정의가 규정

되어 있다. 반면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방법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해석이 애매한 경우가 많아 언어적 수단에 비해 의사소통자간의 오해를 유발하기 쉽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사소통이란 용어는 학자마다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와 같이 의사소통에 관한 여러 정의와 개념 요소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을 사람들 간에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상징적 처리를 사용하여 생각이나 감정, 정보, 태도, 의견 등을 교환하는 순환적인 상호교류의 과정으로서, 그 안에는 언어적, 비언어적 메시지가 모두 포함된다고 정의하였다.

2) 의사소통의 유형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유형에 따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게 된다. 특히 가정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의 단위이며 인간성장의 터전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어떤 유형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문제는 자녀의 성장발달과 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의사소통 유형은 전달된 메시지의 내용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메시지의 전달 방식이나 전달과정에 대한 것으로 성원 상호간의 밀접한 감정교류, 개인의 사고, 가치, 관심들의 표현을 촉진시키거나 지체시키는 언어적 상호작용의 정도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하였다(이진용, 1990).

의사소통 유형을 분류하는 국내의 연구들에 대해 살펴보면, 이정우와 김규원(1989)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을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메시지의 선택과 전달요소를 고려하여 쌍방 차단형, 자녀 차단-어머니 개방형, 자녀 개방-어머니 차단형, 쌍방 개방형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창숙(1987)은 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으로 친숙형, 성실형, 분석형, 타인지향형을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으로 권위형, 희생형을 제시한 바 있고, 김정희(1987)는 청년기 자녀와 어머니간의 의사소통 유형을 수평 협력적 쌍방 통행식과 수직, 강압, 지시적인 일방 통행식으로 구분하였고, 홍기선(1985)은 대인 의사소통 과정을 메시지 흐름의 방향에 따라 일방적 유형, 반응적 유형, 상호작용 유형으로 나누었

으며, 송성자(1985)는 한국인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으로 권위지향적 불성실 지향형과 희생 지향형, 그리고 지배 지향형과 소심 지향형으로 분류하였다.

Rohner(1991)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을 수용-거부 이론(parental acceptance-rejection theory)으로 구분하여 청소년의 행동, 인지, 정서발달에 있어서 성인으로 성장 했을 때의 성격에 대해 부모의 수용과 거부의 결과를 설명하고 예측하려는데 초점을 두었다(선명숙, 2011, 재인용). Barnes & Olson(1982)은 부부나 한 자녀가 경험한 가족 의사소통의 측면들을 추정하여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을 개방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나누고,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개방적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개방적 의사소통이란 정확하고 모순되지 않는 메시지를 보내고, 감정이입과 지지적 발언 및 효과적인 문제 해결기술을 가지는 의사소통 유형이며,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일치되지 않고 모순된 메시지를 보내고 부정적인 발언을 하며 이중속박 및 빈약한 문제해결 기술을 지닌 의사소통 유형이다.

Hawkins, Weisberg와 Ray(1980)는 언어적 표현 정도와 자기개방 정도에 따라 의사소통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하여, 기능적 의사소통으로 언어적 표현이 개방적이고 감정노출정도가 높은 친숙형과 언어적 표현이 개방적이나 감정노출정도가 낮은 분석형을,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으로 언어적 표현이 폐쇄적이고 부정적인 감정노출정도가 높은 억제형, 언어적 표현이 폐쇄적이고 감정노출정도가 낮은 차단형을 제시하였다(백승미, 2003, 재인용). 그밖에도 Vencent(1979) 등은 가족규칙에 따라 의사소통 유형을 가족규칙이 가족 구성원 중심이 아니며 가족 규칙이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완고형, 가족규칙이 가족 구성원 중심이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변화하는 융통형, 낮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많고 타인을 자신보다 우선하여 아첨하거나 열등감과 공포감을 느끼는 공포형, 낙관적이고 희망적이며 우호적인 개방형 의사소통으로 나누었다(백승미, 2003, 재인용). Birch와 Ladd(1977)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수용-거부영역은 자녀를 수용하는 태도 정도를, 자율-통제형은 자녀를 자율적 태도로 대하는 정도를, 과잉-비과잉 영역은 자녀에 대한 관대함 정도를 의미한다. Gorden(1975)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을 I-message와 You-message로 구분하였다. I-message는 자녀의 행동에 대해 부모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

지를 전달함으로써 부모의 입장 및 느낌을 알려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해주는 유형이며, You-message는 명령, 경고, 설교 등의 형태로써 자녀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또는 자녀에게 자신이 얼마나 나쁜 아이인가 라는 식의 평가나 비난을 하는 형태의 의사소통 유형을 말한다. 가족치료자인 Satir(1964)는 역기능적인 가족의 의사소통 유형을 구분하였는데, 무조건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며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회유형, 타인의 결점을 지적하기를 좋아하는 비난형, 결코 자기감정을 내보이지 않고 냉정 침착하게 의사소통 하는 초이성형, 주변 일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방관형이 있으며, Beaubien(1970)은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메시지의 선택, 메시지의 전달, feedback의 요소를 어떤 범주의 부모-자녀 범주의 집단으로 특성화시켰다. 그러면서 그는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을 청소년의 대화 행동과 어머니의 반응을 관련지어 쌍방차단, 자녀차단-어머니 개방형, 자녀 개방- 어머니 차단, 쌍방개방형의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김용태(2000)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들이 가족들이 정신적 안정감과 자녀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견해들을 종합하여 의사소통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개방적인 의사소통, 쌍방향적인 의사소통, 긍정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폐쇄적인 의사소통, 권위지향적 의사소통, 부정적 의사소통)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의 유형으로 Barnes와 Olson(1982)의 분류방식을 채택하여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을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실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개방적 의사소통 유형과 자녀가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의사표현을 주저하고 주제 선택에 조심하며 부모로부터 애정적 표현보다는 비난적 표현을 더 많이 경험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형 의사소통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3)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인간이 성장하면서 가장 먼저 접촉하고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대상은 가족이

다. 가족 구성원간의 경험은 첫 사회적 관계 경험이자, 다른 사회적 관계로 확대될 수 있는 기초가 된다(정은영, 신혜원, 2009). 인간발달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가족 환경을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하고 있다(안선희, 김선영, 2004). 가족원 개개인의 건강한 발달은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유영주, 2004). 자녀는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부모와 끊임없는 의사소통을 하게 된다. 자녀가 부모와 상호작용을 하며 자연스럽게 습득한 경험은 청소년 시절의 정서발달 및 대인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희수, 2003 ; 선명숙, 2011, 재인용).

의사소통을 어떻게 느끼고 지각하고 받아들이는지의 문제는 청소년 발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생활지도 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모든 의사소통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내·외적 태도나 행동을 총괄하는 개념이다(김희수, 2003 ; 선명숙, 2011, 재인용). 또한 위의 의사소통 정의에 비추어 볼 때,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서로의 정보, 지식, 경험, 사상, 신념, 감정 등을 공통화하거나 공유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하는 상징적이고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부모와 자녀 간에 사실, 생각, 의견, 감정의 표현을 통해 공통의 이해를 이루고자 하는 일련의 행동인 것이다(권미경, 홍경자, 1993)

청소년기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부모의 책임과 역할에 새로운 이해와 재조정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자율성을 획득하려는 욕구로 인해 부모와 갈등이 증가하고 세대 차이로 인해 부모-자녀 관계가 소원해지기 쉬운 시기이므로 부모-자녀간의 상호 작용방식이 중요해진다. 즉 자녀가 부모에게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하고 부모로부터 감정이입적이고 지지적인 반응을 받는 개방적 의사소통은 청소년기 부모-자녀 관계의 발전과 청소년의 비행 행동을 예방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박현진, 2003).

문제행동을 하는 청소년의 가족 간에는 대부분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이 내재함을 알 수 있다(이은희, 서미정, 최태산, 2000). 비행청소년의 가족은 일반가족에 비해 문제가 많고 불명확하며 모순된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들은 명확하고 의미 있는 의사소통을 위한 서로의

강화 능력이 부족하고 쌍방적인 대화가 아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대화를 주도하고 대화의 주제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가족은 지지적인 의사소통보다 방어적인 의사소통을 주로 하며 가족구성원들 사이의 혼동된 의사소통이 자녀의 문제행동을 가져오게 된다(Alexander, 1973; 선명숙, 2011, 재인용).

정유미와 김득성(1998)은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자녀의 정서교육에 지장을 주고 부모-자녀간 갈등을 일으켜 이로 인한 욕구불만이 외적으로 표현 될 때, 다른 여러 제반 환경과 결합하여 문제행동을 촉진한다고 하였다.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는 자녀들은 학교생활(백경숙, 권용신, 2004), 가정생활(이영숙, 김정옥, 2002), 또래관계(김영미, 심희옥, 2001)에 잘 적응하고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성, 동정심, 사교성등과 같은 대인관계 성향이 높았으며 개방적이고 직접적인 자기표현 능력이 증가하였고(권미경, 홍경자, 1993), 삶의 질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송미령, 안혜영, 김은경, 2002). 그들은 폐쇄적, 간접적 의사소통을 하는 자녀들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았으며, 비행 정도나 반사회적 문제행동도 덜 일으켰다(Alexander, 1973; 선명숙, 2011, 재인용)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서는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개방적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부모-자녀간 개방적 의사소통은 서로 간의 가치전달과 의사전달을 통한 내적 긴장의 완화, 관계 확인에 따른 자신감이나 안정감의 획득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청소년기 자녀에게는 의사소통이 인성이나 행동발달 등과 관계되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Deacon과 Firebaugh(1975)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인간 상호간의 접촉을 지속시켜 미래지향적 관리 과정을 유도하고 서로의 정보교환과 이해를 가능하게 하며 자녀의 사회화와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김명우, 2003).

E. J. Thomas(1977)는 가족 내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하는 매개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이라고 하였고, 의사소통은 태도, 생각, 애정, 사상 등을 전달해주는 인간관계의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가족을 보면 가족 성원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가장 공통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백승미, 2003).

연문희(1992)는 가정에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

하였다.

첫째, 상대방의 감정을 억압하거나 무시하도록 애쓸 필요가 없이 오히려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하여 줌으로써 정화작용을 통하여 해소하도록 돕는다.

둘째, 부모와 자녀사이의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인간관계를 돈독히 한다.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며 그의 감정을 인정하고 이해하여 주기 때문에 바람직한 대화를 주고받는 부모와 자녀는 공감을 통해 정서적으로 하나가 된다.

셋째, 자녀들은 부모와 의사소통을 통하여 자율적이고, 자주적이며, 책임감 있고, 창조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일방적으로 명령, 경고, 지시, 충고, 설득, 훈계, 비난하는 분위기에서는 자녀들이 타율적이고, 소극적이고, 순종하거나 반항하는 무책임한 인간이 되기 쉽다.

넷째, 부모와 자녀사이의 의사소통은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를 신뢰하고 존경하게 한다. 부모는 자녀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사에 귀 기울임으로써 자녀들도 부모의 뜻을 존중하게 된다.

Rueter와 Conger(1995)는 온정이 넘치고 지지적인 가정 분위기는 부모-자녀간의 의견 불일치를 성공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적대적이고 고압적인 가정 분위기는 부모와 자녀의 의견 불일치와 가정의 기능마비를 불러온다고 하여 역기능적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가져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악영향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Price(1973)는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그들의 관심이 차차 친구에게 옮겨지고 가벼운 대화는 친구들과 나누지만 선악 구별, 진학, 미래의 목표 등 중요한 문제는 부모의 영향을 받으므로 부모는 자녀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면서 권위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동료와 같은 수평적인 관계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부모-자녀간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자녀의 인성과 지적, 정서적 발달에 부적응을 가져오며, 자녀가 올바르게 못한 사회화 과정을 겪게 함으로써 다른 사회집단에 부적응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반면, 개방적 의사소통을 통하여 부모-자녀간의 관계의 질이나 자녀의 인성 및 지적 발달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모-자녀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자녀의 성숙과 올바른 사회화 교육을 위

해서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긍정적, 개방적인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의사소통이 미치는 영향

의사소통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선행논문의 결과를 토대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형 의사소통은 부모-자녀 관계의 발전과 청소년의 비행행동을 예방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하였으며(박현진, 2003),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는 자녀들은 학교생활(백경숙, 권용신, 2004), 가정생활(이영숙, 김정옥, 2002), 또래관계(김영미, 심희옥, 2001)에 잘 적응하고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립성, 동정심, 사교성등과 같은 대인관계 성향이 높았으며 개방적이고 직접적인 자기표현 능력이 증가하였고(권미경, 홍경자, 1993), 삶의 질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송미령, 안혜영, 김은경, 2002). 그들은 폐쇄적, 간접적 의사소통을 하는 자녀들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았으며, 비행 정도나 반사회적 문제행동도 덜 일으켰다(Alexander, 1973; 선명숙, 2011, 재인용)

김희수(2003)는 개방형 의사소통은 청소년 시절의 정서발달 및 대인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김명우(2003)은 어머니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박현진(2003)은 개방형 의사소통은 학업성적과도 상관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방문희(1992)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이 중, 고등학생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고, 이영환, 김연자(2002)는 개방적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자녀의 정서지능 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부모-자녀간 개방적 의사소통은 서로 간의 가치전달과 의사전달을 위한 내적 긴장의 완화, 관계 확인에 따른 자신감이나 안정감의 획득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청소년기 자녀에게는 의사소통이 인성이나 행동발달 등과 관계되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둘째, 문제행동을 하는 청소년의 가족 간에는 대부분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이 내재함을 알 수 있다(이은희, 서미정, 최태산, 2000). 비행청소년의 가족은 일반 가족에 비해 문제가 많고 불명확하며 모순된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들은 명확하고 의미 있는 의사소통을 위한 서로의 강화 능력이 부족하고 쌍방적인 대화가 아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대화를 주도하고 대화의 주제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가족은 지지적인 의사소통보다 방어적인 의사소통을 주로 하며 가족구성원들 사이의 혼동된 의사소통이 자녀의 문제행동을 가져오게 된다(Alexander, 1973; 선명숙, 2011, 재인용).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볼 때, 의사소통은 자녀의 안녕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학업성적, 자아개념, 사회성, 대인관계, 도덕성, 언어 능력, 정서지능, 인성의 발달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자녀의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는데도 큰 역할을 하며 인지능력이나 학업성취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다중지능

1) 지능과 다중지능

지능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나, 이론가들은 지능이 완전히 발달한 성취물이기보다는 일종의 능력 또는 잠재력이며 생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지능은 유전적으로 부여된 인간의 중추신경계의 특징들과 경험·학습·환경요인에 의해 만들어진 발달된 지능의 복합물이다.

여러 학자들의 지능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면, Binet(1905)는 지능이란 기본적인 능력으로서 판단력, 이해력, 논리력, 추리력, 기억력이 그 구성요소라고 제안하였고, Spearman(1904)은 모든 지적 기능에는 공통적인 일반요인이 있는 한편, 음악적 재능이나 기계적 능력과 같은 특수한 지능이 존재한다는 2요인설을 제시하

였다(박영숙, 1994, 재인용).

Thorndike, Lay와 Dean 1909)은 지능에는 여러 특수한 능력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특수지능은 추상적, 언어적 능력과 실용적 능력, 사회적 능력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하였다(박영숙, 1994, 재인용).

Terman(1925)을 중심으로 한 유전론적 입장에서는 지능이란 유전에 의해 고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와 반대로 Wellman을 중심으로 한 환경론자들은 경험적 연구를 통해 지능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고 경험의 축적에 따라 동기나 성격, 교육적 배경 등 소위 비지적인 요소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박영숙, 1994, 재인용).

Cattell(1971)은 지능을 유동적 지능과 결정적 지능의 2차원으로 구별하였는데, 유동적 지능이란 개인의 독특한 신체구조와 과정에 기초하여 14세경까지 계속 발달되지만 22세 이후 급격하게 감소되는 선천적 기능으로서 뇌손상이나 정상적 노령화에 따라 감소되는 지적능력인 반면, 결정적 지능이란 원래적인 유동적 지능을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문화적, 교육적 경험에 따라 영향을 받는 기능으로써 40세까지, 환경에 따라서는 그 이후에도 발전될 수 있는 지능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박영숙, 1994, 재인용).

Harward Garder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igences)이란 언어능력과 수리능력과 같이 특정 영역을 강조하는 기존의 지능의 관점과 달리 지능의 개념을 복수화하여 인간의 지능은 단순히 한 두 가지의 능력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능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주어진 상황 속에서 문제 해결을 해 나간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다중지능의 영역은 언어적 지능, 논리 수학적 지능, 공간적 지능, 음악적 지능, 신체 운동적 지능, 대인 관계 지능, 개인 이해 지능, 자연 친화지능 등 여덟 가지 영역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들을 종합하여 지능의 개념을 정리해본다면, 지능이란 유전적, 환경적 결정요인을 지니고 있으며 개인의 지능은 유전적 결정요인 뿐만 아니라 초기 교육적 환경, 후기 교육과 직업 경험, 현재의 정서적 상태 및 기질적, 기능적 정신장애, 검사 당시의 상황요인과 상호작용결과로 나타나는 개인의 전체적인, 잠재적인 적응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비네가 처음 지능검사를 만든 이후 약 80년이 지난 1983년에 하버드대학교의

하워드 가드너(Howard Gardner)교수는 그의 저서 『정신의 구조: 다중지능 이론』(Frames of Mind: The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s)라는 책을 통하여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였다. 그는 기존의 문화가 지능을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책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 지능과 같은 단일한 능력이 아니라 다수의 능력이 인간의 지능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능력들도 상대적 중요성은 동일하다고 가정하였다. 가드너는 IQ점수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보다 넓은 시각에서 인간의 잠재적 능력을 탐구하였다.

가드너는 지능을 “문화 속에서 가치가 부여된 문제를 해결하거나 결과물을 창출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전통적인 IQ개념은 학교 내에서 특별한 가치가 부여된 지식이나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가드너의 정의는 이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 걸쳐 있다. “결과물을 창출”한다는 것은 하얀 화판에다 사람의 감정을 자아내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될 수 있으며, 또는 어떤 집단이 어떤 문제에 대해 아무런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할 때 그 집단을 잘 이끌어 합의점에 도달하는 것도 된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결과물을 창출 한다”는 것은 하나의 실용적인 접근으로서 실생활 상황에서 어떤 능력을 사용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정의에 바탕을 둔 다중지능 이론은 다음의 세 가지의 원리를 내세우고 있다.

첫째, 지능은 단일한 능력 또는 다수의 능력으로 구성되든지 간에 단일한 것이 아니라, 서로 별개로 구분되는 다수의 지능으로 구성된다. Gardner(1993)가 제안한 다수의 지능이란 언어, 논리수학, 공간, 음악, 신체운동, 대인관계, 개인이해 자연친화지능이다. 각각의 지능들은 ‘지능’이라는 상위체제의 일부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닌 그 자체가 독립된 체제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둘째, 지능들은 서로 독립적이다. 인간은 다양한 종류의 내용에 대한 그의 능력은 있으나, 한 내용에 대한 그의 능력은 다른 내용에 대한 그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다.

셋째, 지능은 서로 상호 작용한다. 각각의 지능이 서로 별개의 기능을 보인다고 해서 그들이 함께 작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Gardner는 각각의 지능과 관련된 언어, 수, 그림, 음, 몸짓과 같은 상징을 다루는데 별개의 심리적 과정이 관여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하나의 상징을 능숙하

게 다루는 사람이 다른 상징을 필연적으로 능숙하게 다루지 않으며, 또 각각의 상징을 다루는 지능은 대뇌피질의 각기 다른 부위에 종속된다고 가정한다.

위에서 제시한 원리와 가정들에 의해 Gardner는 다중지능 이론을 주장하였으며, 그의 다중지능 이론은 다음과 같은 특징 즉 핵심적인 주장을 지니고 있다.

첫째, 모든 사람들은 여덟 가지 지능을 다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은 여덟 가지 지능 모두 매우 높은 수준에 있으나, 장애가 심한 아이들은 여덟 가지 지능 모두가 대단히 낮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양극단 사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한다. 즉, 어떤 지능들은 매우 발달했고, 또 어떤 지능들은 보통 수준이며, 그 외의 지능들은 비교적 지체되어 있다.

둘째, 대다수의 사람들은 각 지능들을 적절한 수준까지 발달시킬 수 있다. 특정 지능 영역에서의 결함을 극복할 수 없는 선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실제로 적절한 자극, 격려 혹은 교육만 제공해 준다면 어느 누구라도 여덟 가지 지능 모두를 어느 정도 높은 수준까지 개발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Gardner는 보통 수준의 선천적 음악 재능을 타고 태어난 사람에게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 준다면 훌륭한 연주가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대개 지능들은 복잡한 방식으로 함께 작용한다. Gardner는 각 지능은 실제로 하나의 허구(fiction)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떤 지능이라도 현실 상황과 유리되어 각 지능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몇몇 희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으며, 항상 함께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요리 책을 읽어야 하고(언어 지능), 재료를 반으로 나누어야 하며(논리 수학 지능), 모든 가족들을 만족시키는 메뉴를 개발해야 하며(대인 관계 지능), 자신의 입맛에도 맞아야 한다(자기 이해 지능). 따라서 각 지능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난 후에는 각 지능들을 구체적인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넷째, 각 지능 범주 내에서 지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특정 지능 영역에서 지적인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하는 표준적인 속성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글을 읽지는 못하지만,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잘 하거나 엄청난 어휘를 지니고 있으며, 그의 언어 지능은 매우 높을 수 있다. 다중지능 이론은 사람들이 지능들 간에는 물론 같

은 지능 내에서도 자신의 재능을 표현하는 방법이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여덟 가지 지능을 각각 독립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필답고사 형식의 검사가 아닌 대안적인 평가가 요구된다. 다중지능을 평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각 지능에 관련된 다양한 종류의 과제 활동, 그리고 경험에서의 수행 능력을 현실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즉 몇 개의 인위적인 학습 과제를 수행하게 하기 보다는 실제 생활 경험을 다루어 평가해야 한다.

이와 같이 Gardner는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 프로파일이 다르더라도 다중지능을 모두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절한 교육과 환경이 제공된다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각 지능들을 발달시킬 수 있으며, 개인의 재능을 나타내는 방법이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하여 지적 능력들의 동등성을 강조하고 개인의 지능과 능력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여 열린 교육, 개별화 교육, 수준별 교육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 개혁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2) 다중지능 구성 요소

Gardner가 제시한 지능은 음악지능(Musical Intelligence), 신체운동지능(Bodily Kinesthetic Intelligence), 논리수학지능(Logical Mathematical Intelligence), 언어지능(Linguistic Intelligence), 공간지능(Spatial Intelligence), 대인관계지능(Interpersonal Intelligence), 그리고 자기이해지능(Intrapersonal Intelligence), 자연친화지능(Naturalist Intelligence)의 여덟가지 지능이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음악지능(Musical Intelligence)

음악지능은 음악적 표현 형식을 지각하고 변별하고 변형하고 표현하는 능력이다. 즉 음조의 질을 지각하고, 멜로디와 리듬을 창작하고, 소리에 대해 민감하고, 음악의 구조를 이해하는 능력을 일컫는다.

음악지능이 뛰어난 사람은 소리, 리듬, 진동과 같은 음의 세계에 민감하고, 사

람의 목소리와 같은 언어적인 형태의 소리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소리에도 민감하다. 예를 들어, 발자국 소리만으로 누가 오는지를 알아내는 사람은 음악지능이 높다고 하겠다. 또한 음악의 형태를 잘 감지하고, 음악적 유형을 잘 구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음악 형태로 변형시키기도 한다. 음악지능이 높은 사람은 악기 연주를 좋아하고 작곡하는 것을 좋아한다.

음악지능은 작곡가, 지휘자, 음향학자, 음향 기술자 등에 있어서 뚜렷이 나타난다. 음악지능을 강화하는 활동으로는 리듬패턴, 보컬사운드, 작곡 및 편곡, 악기 연주등이 있으며, 온 가족이 모여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가족 간의 이해와 친목 도모에도 좋으며, 자녀의 음악지능을 높이는 데도 좋은 방법이다.

(2) 신체 운동지능(Bodily Kinesthetic Intelligence)

신체운동 지능은 자신의 몸 전체 또는 일부를 이용해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사물을 만들거나 변형시키는 능력이다. 즉 정신과 신체를 연결하고, 동작을 통제하고, 몸 전체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고 모방하는 능력을 일컫는다.

신체운동지능은 가드너의 지능들 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이 되는 것으로서 사람마다 자신의 운동, 균형, 민첩성, 태도 등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본다. 운동선수들은 신체운동지능에 강하고, 이러한 유명 운동선수들의 지능은 선수가 되기 이전부터 이미 나타났다고 가드너는 주장한다. 유명 운동선수들은 어떻게 몸을 움직여야 하고 어떻게 반사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타고난 감각을 가졌다고 한다.

신체운동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생각이나 느낌을 글이나 그림보다는 몸 동작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들은 가수들이 노래할 때 병행하는 율동을 쉽게 따라하거나 레크레이션 등에서 하는 무용, 연극 등을 잘한다. 또한 손으로 다루는 능력이 뛰어나 손재주가 있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자동차 운전은 물론 스케이트나 자전거를 다른 사람보다 쉽게 배워버린다고는 나무를 잘 타고 오르는 능력이 있다. 즉 몸의 균형감각과 촉각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발달되어 있다. 이들은 여기저기 만져보면서 이야기하고, 신체 언어를 많이 활용하며, 신체 감각을

통한 지식 탐구, 공간과의 교류, 만지기, 움직이기 등을 통해 잘 배운다.

주로 무용가, 운동선수, 발명가들이 신체운동 지능이 높게 나타나는데, 신체운동지능을 강화하는 활동으로는 춤, 역할극, 제스처, 드라마, 무언극, 운동, 율동 등이 있으며, 젓가락 사용이나 공기놀이도 신체운동지능을 높이는데 좋은 방법이다.

(3) 논리수학지능(Logical Mathematical Intelligenc)

논리수학지능이란 숫자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며 추론하는 능력이다. 즉 추상적 유형을 확인하고 귀납적·연역적으로 추리하고, 관계와 결합을 구별하고, 복잡한 계산을 수행하고 과학적 추리를 하는 과학적 사고에 관한 능력을 일컫는다.

논리수학지능은 논리적 문제나 방정식을 풀어 가는 정신적 과정에 관한 능력으로 때에 따라서는 언어 사용이 요구되지 않는 지능이다. 논리수학지능이 높은 사람은 논리적 과정에 대한 문제들을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해결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추론을 잘 이끌어 내며, 문제과약을 주먹구구식이 아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한다. 숫자에 강하고, 차량번호나 전화번호 등도 남들에 비해 잘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실험하기를 좋아하고, 뭔가 항상 밝혀내려는 노력이 보이며, 수와 관련된 내용에는 귀와 눈이 번뜩인다. 질문을 많이 하며, 어떤 유형과 관계를 밝혀내는 데는 일가견이 있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근거와 원리를 찾아 해결하려한다. 분류를 한다든지, 그룹을 짓는다든지 추상적인 유형이나 관계를 통해 가장 많이 배운다.

주로 좌반구의 두정엽과 우반구의 통제를 받으며, 논리수학지능에 크게 의존하는 사람들은 수학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재정 분석자, 회계사, 공학자, 과학자 등이다. 논리 수학적 지능을 강화하는 활동으로는 추상적 공식 풀기, 도표 구조화, 수열, 계산법, 부호 해독, 삼단논법, 문제해결 등이 있으며, 숫자를 활용한 게임을 가족이 같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4) 언어지능(Linguistic Intelligence)

언어지능이란 언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이다. 언어지능은 단어의 소리, 리듬, 의미에 대한 감수성이나 언어의 다른 기능에 대한 민감성 등과 관련된 능력이다. 오래 전부터 사람들은 언어와 두뇌와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어떤 사람의 두뇌의 일부분이 손상되면, 비록 그 사람의 단어나 문장 인식의 능력은 그대로 남아 있다 할지라도 자신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을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드너는 유아나 청각 장애자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언어를 개발하기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다. 언어지능이 높은 사람은 토론 학습 시간에 두각을 나타내며, 유머나 말 잇기 게임, 낱말 맞추기 등을 잘한다. 다양한 단어를 잘 활용하여 말을 잘하는 달변가가 많으며, 똑 같은 글을 써도 심금을 울리기도 하고, 웃음을 자아내기도 한다. 소설가, 변호사, 웅변가, 기자 등이 이에 해당되며, 언어지능을 강화하는 활동으로는 공식 연설, 일기, 창작, 토론, 유머 및 농담, 이야기 만들기 등이 있으며, 가족이 같이 생활속의 사건에 대해 대화를 하거나 토론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주제를 정해놓고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거나, 동화속의 주인공이 되어 느낌이나 생각을 말하는 것은 언어지능과 대인관계지능을 같이 높일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다.

(5) 공간지능(Spatial Intelligence)

공간지능은 시각적·공간적 체계를 정확하게 지각하고 그런 지각을 통해 형태를 바꾸는 능력이다. 즉 사물을 정확하게 지각하고, 사물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고, 사물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이미지를 조각하거나 공간에서 길을 찾아내고, 심리적 형상을 생각해내고 묘사하는 능력을 일컫는다.

공간지능은 시공간적 세계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능력과 건축가, 미술가, 발명가 등과 같이 3차원의 세계를 잘 변형시키는 능력이다. 공간지능은 색깔, 선, 모양, 형태, 공간, 그리고 이런 요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민감성과 관련 있다. 신경과학에 의하면, 인간 두뇌의 우측반구가 공간적 지능에 관련되어 있으며, 공간적 지능은 시각 능력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간지능이 높은 사람은 밤하늘의 별을 보고 방향을 잘 찾아내며, 처음 방문한 곳도 다시 찾아가는 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잘 찾아간다. 또한 공간적 아이디어들을 도표, 지도, 그림 등으로 잘 나타내고,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디자인, 그림 그리기, 만들기 등을 좋아한다. 이들은 뭔가 만드는 데에는 남에게 뒤지지 않는다. 다른 이들에 비해 한 번 보면 비슷하게 그려내거나, 한 번 본 물체도 상상해 내기를 잘 하고, 변화를 쉽게 찾아내고, 미로 찾기 등을 잘 한다. 또한 시각화 또는 상상을 통하여 잘 배우고, 색깔이나 그림을 활용했을 때 많이 배운다. 이들은 시각적 표상체계를 가지고 있다. 공간지능을 강화하는 활동으로는 항해, 지도제작, 상상력, 색채배합, 그림, 데생, 사진 찍기 등이 있으며, 가족이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도를 보고 목적지 찾아가기나, 약도그리기, 여행하면서 주변경관 위치 기억하기 등도 좋은 방법이다.

(6) 대인관계지능(Interspersonal Intelligence)

대인관계지능은 타인의 기분, 의도, 동기, 감정을 지각하고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즉 공동작용을 창조하고 유지하며,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부터 사물을 판단하고 집단과 협동하며,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일컬으며, 개인적 정체감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인관계지능은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이해하며, 그들의 행동을 해석하는 능력이다. 다른 사람들의 기분, 감정, 의향, 동기 등을 인식하고 구별할 수 있는 능력과 얼굴 표정, 음성, 몸짓 등에 대한 감수성,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힌트, 신호, 단서, 암시 등을 변별하는 역량, 또 이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말을 잘하고, 그룹 활동에 잘 참여한다. 남을 잘 이해하고, 그들을 잘 이끌어 가며, 그룹을 조직하거나, 그룹 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중재, 조정 등을 잘 한다. 다른 학습자들과 공유하면서 잘 배우고, 비교 또는 연계시키거나, 협동과 대화를 통해 잘 배운다. 유능한 정치인, 지도자, 또는 성직자들은 대인관계 지능이 우수한 사람들이 많다. 대인관계지능을 강화하는 활동으로는 피드백 주고받기,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 협력학습, 공감, 분업, 집단 프로젝트

트 등이 있으며, 가족이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으로는 드라마 보면서 등장인물의 감정이나 욕구, 의도에 대한 대화나누기도 대인관계지능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다.

(7) 자기이해지능(Intrapersonal Intelligence)

자기이해지능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 이해 및 지식과 그에 기초하여 잘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다. 즉 집중하고 주의하고 자신의 사고를 평가하고, 다양한 감정을 이해하고 표현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높은 수준의 사고와 추리를 하는 능력을 일컫는다.

자기이해지능은 대인관계 지능과 유사한 특성을 지녔으며,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을 말한다.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은 어떤 감정을 가졌는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등과 같은 자기 존재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다. 화를 내거나 기쁨을 표현하는 무형의 것이 있는가 하면, 시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유형의 것들과 같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지 않은 한 자기이해 지능은 인식하기가 힘들다.

자기이해지능은 철학자, 소설가, 상담자, 성직자, 심리학자 등에게서 찾아볼 수 있으며, 개인이해지능이 손상된 대표적인 예로는 자폐증 아동을 들 수 있다. 자기이해지능을 높이는 활동으로는 일기쓰기, 자신의 욕구나 감정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8) 자연친화지능(Naturalist Intelligence)

자연친화지능은 식물, 동물과 과학적인 연구를 포함하여 자연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연친화지능은 다중지능 이론의 목록에서 가장 최근에 올라온 것으로, 자연 현상에 대한 유형을 규정하고 분포하는 능력을 일컫는다. 자연 탐구지능이 높은 사람은 영화에 나오는 타잔처럼 자연 친화적이고, 동물이나 식물 채집을 좋아하며, 이를 구별하고 분류하는 능력이 높다. 산에 가더라도 나뭇잎의 모양이나, 크기, 지형 등에 관심이 많고, 이들을 종류대로 잘 분류하기도 한

다. 자연친화지능이 높은 유형으로는 다윈, 사육사, 원예가, 동·식물학자, 사냥꾼, 과학자등에게서 나타나며, 자연친화지능을 높이는 활동으로는 등산이나 여행을 갈 때 자연관찰이나, 계절에 따른 자연의 변화에 대해 기록하기, 자연사 박물관이나 농촌 체험하기도 좋은 방법이다.

3. 선행연구 고찰

1)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선명숙(2011)은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안녕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과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라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평균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안녕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남학생집단과 여학생 집단 모두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개방적으로 지각할수록 안녕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역기능적으로 지각할수록 안녕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우(2003)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박현진(2003)은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및 학업 성적과의 관계에서 초등학생의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간에 상관 관계가 있고, 초등학생의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학업 성적간에도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백승미(2003)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아동의 다중지능과의 관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부모의 학력이 높고, 가정의 경제상태가 부유하며, 아버지의 직업이 관리직이나 전문직인 아동이 부모와

긍정적이며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화목한 가정의 분위기는 부모-자녀간의 개방적 의사소통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가정에서 화목한 분위기의 조성을 위해서 부모가 노력해야 됨을 밝힌 바 있다.

방문희(1991)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이 중·고등학생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여 부모들은 자녀의 발달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의사소통의 내용과 질에 다양한 변화를 주어 청소년이 사회에 원만하게 적응해 나아갈 수 있는 대인관계 성향을 형성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고, 김미호(1989), 김경원(2000)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자녀의 사회적 성숙 및 사회적 행동특성 등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성자(2001)는 중학교 3학년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 수준과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이 유의미한 관련을 보인다고 하였고, (이영환 2002, 김연자 2002)는 개방적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자녀의 정서지능 발달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났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또 다른 연구에서 어머니와의 긍정적 의사소통과 사춘기 여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Newlon, 1989), Franklin과 Bankston(2000)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자녀들이 알콜이나 다른 약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고 이런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룰을 제시하고, 기대를 공유하며, 개방적이고 지지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고, Berkowitz(1992)는 가족의사소통과 아동의 도덕성 발달과의 관계에 주목하고 가정에서 아동들을 가족 간의 도덕적 토론에 즐겨 참여시키고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도록 격려하면 아동들이 좀 더 성숙한 도덕적 단계에 이른다고 하였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관련된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수록 자녀의 안녕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자아존중감, 학업성적, 자아개념, 사회성, 대인관계, 도덕성, 언어 능력, 정서지능, 인성의 발달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자녀의 문제 행동을 감소시키는데도 큰 역할을 하며 인지능력이나 학업성취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의사소통 유형과 다중지능 하위영역 간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가정에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것이 좋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다중지능에 관한 연구

김소정(2009)은 초등학생의 다중지능과 학교생활적응 및 성취동기와의 관계에서 초등학생의 다중지능과 학교생활적응은 모든 하위 영역에서 매우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의 다중지능과 성취동기의 관계는 모든 하위 영역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취동기와 가장 관련이 높은 하위지능은 개인이해지능이며 다음으로 논리수학지능,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 자연지능, 공간지능, 신체지능, 음악지능 순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따른 아동의 다중지능의 전체 점수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하위 영역별로 음악지능,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황민자(2009)는 고등학생의 다중지능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성별, 학교특성에 따른 다중지능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학교특성에 따라서는 일반계학생이 전문계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고등학생의 다중지능 8개 하위요인과 진로성숙도의 3개의 하위요인 간의 관계를 단순상관분석을 실시하여 살펴본 결과, 각각의 하위요인 간에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 드러났다. 또한 다중지능 8개 하위요인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중지능 중에서 자기이해지능이 진로성숙도의 진로태도, 진로능력, 진로행동 등 모든 하위영역과 가장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이해를 중심으로 한 개인의 독특한 지능개발에 힘써야 함을 드러냈다.

김정희(2004)은 초등학교 학생의 가정환경과 다중지능간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다중지능 평균은 논리수학적 지능은 남자가 높고, 음악적 지능, 공간적 지

능, 언어적 지능, 대인지능, 자기이해지능은 여자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지역에 따른 다중지능은 도시가 농촌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다중지능 여덟 개 하위 항목인 음악적 지능, 신체운동적 지능, 논리수학적 지능, 공간적 지능, 언어적 지능, 대인지능, 자기이해지능 자연친화지능은 가정환경의 하위 네 개 항목인 성취-비성취, 개방-폐쇄, 친애-거부, 자율-타율의 영향을 받는다. 이는 조덕제(2001)의 연구인 ‘아동이 인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다중지능영역과의 관계’에서 밝힌 부모의 양육태도가 다중지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일치한다.

백승미(2003)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아동의 다중지능과의 관계에서 여학생과 남학생은 다중지능에서 성차를 나타냈으며, 부모의 학력이 높고, 가정의 경제상태가 부유하며, 아버지의 직업이 관리직이나 전문직인 아동이 다중지능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화목한 가정의 분위기는 다중지능의 모든 하위 영역들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적절한 사회, 문화적 환경을 제공해준다면 아동의 지적 가능성이 계발되고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향자(2001)는 가정환경 변인과 유아의 다중지능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가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때 대부분의 지능들이 높은 순위를 보였고,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때 낮은 순위를 보여 유아의 다중지능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

조미경(2003)의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다중지능의 차이 연구에서는 중학생 남녀 모두 자기이해지능과 대인관계지능이 가장 높고 신체운동지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중학생의 신체운동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은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미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고등학생의 경우 일반계, 실업계 모두 자기이해지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계는 신체운동지능이, 실업계는 논리수학지능이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일반계는 신체운동지능을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 모두 약간씩 높게 나타났다. 음악지능과 자기이해지능은 여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생과 마찬가지로 논리수학지능과 신체운동지능, 공간지능에서는 남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능영역별 관계에서는 대인관계지능과 언어지능이 매우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류숙희(1996)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대학원생을 다중지능의 발달경향과 성

별에 따른 프로파일을 연구하였는데, 다중지능은 연령별, 성별로 서로 다른 프로파일을 보였다.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지능들 간의 편차가 커졌으며, 특히 남자에 비해 여자가 더욱 커진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미영(2006)은 다중지능의 계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음악지능과 공간지능, 언어지능은 일반계, 기타계, 실업계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자기이해지능은 기타계, 일반계, 실업계 순으로 나타났다. 신체운동지능은 기타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논리수학지능은 일반계에서 가장 높게, 대인관계지능과 자기이해지능, 전체 다중지능은 일반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타계가 마지막으로 실업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영재와 일반 학생의 다중지능 차이를 연구한 것으로 류성립(2004)의 초등수학 영재의 다중지능 분석에 관한 연구, 김주현, 신명희(2002)의 과학영재의 지능특성연구, 장영숙(2004)의 영재유아와 일반유아의 다중지능연구, 허정순(2007)의 초·중등 수학·과학·정보 영재의 다중지능 비교 등의 연구에서 영재학생의 경우 일반학생에 비해 신체운동지능이나 자연친화지능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능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용린, 김주현, 박은실(2003)은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한 다중지능과 진로의식 발달 연구에서 초등학생의 다중지능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대체로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한 남녀별 다중지능의 차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경향을 보이는데, 특히 음악지능에서는 남녀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3) 의사소통과 다중지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백승미(2003)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아동의 다중지능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과 다중지능과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의사소통과 다중지능의 모든 하위영역들은 개방형 의사소통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문제형 의사소통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논리수학지능,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

교환 결과 아버지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은 어머니에 비해 다중지능의 모든 하위 영역들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권정애(2007)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다중지능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다중지능과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다중지능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긍정형 의사소통과 다중지능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정형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다중지능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다중지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검증한 결과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자녀간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개인이해지능,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대인관계지능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해 본 결과 아버지와의 개방형 의사소통은 어머니에 비해 다중지능의 하위영역들에 미치는 영향력이 좀 높게 나타났다.

장영애(2011)는 부모의 양육행동 및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초등학교 아동의 다중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음악지능과 공간지능은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논리수학지능은 남아가 여아보다 높게 나타났고, 월수입이 높을수록 논리수학지능,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이 높으며,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논리수학지능,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 자기이해지능이 높고,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음악지능,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제주시내 고등학교 2곳과 농어촌 고등학교 2곳, 총 4곳을 선정하여 550부의 설문지를 수집하였으며, 그중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한 설문지 총 500부가 자료의 분석에 사용되었다.

<표 III-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100%)
지역	제주시 2개교	345	69.0
	농어촌 2개교	155	31.0
학교유형	제주시 일반고 1개교 (남녀공학)	257	51.4
	제주시 전문계고 1개교 (남녀공학)	88	17.6
	농어촌 일반고 2개교 (남자고 1곳, 여자고 1곳)	155	31.0
학년	1학년	143	28.6
	2학년	250	50.0
	3학년	107	21.4
성별	남	202	40.4
	여	298	59.6
전체		500	100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다중지능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의사소통 문항 20문항과 다중지능 문항 119문항, 총 139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검사 도구

이 연구는 의사소통 측정 도구로 Barnes & Olson(1982)이 제작한 부모 - 청소년 자녀간 의사소통 척도(PACI :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를 김윤희(1990)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전체 척도의 신뢰도는 Olson이 1,841가족을 대상으로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Cronbach's α 는 .90이었다.

질문지는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방형 의사소통 유형과 문제형 의사소통 유형 등 2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방식은 5점 Likert식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어 합산한다.

따라서 총 점수범위는 각각 10~50까지이다. 개방형 의사소통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개방적, 긍정적이며, 문제형 의사소통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폐쇄적,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의사소통 유형에 대한 문항과 의사소통에 대한 신뢰도는 <표Ⅲ-2>에서 제시하였는데 개방형 의사소통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α .85 이고, 문제형 의사소통에 대한 신뢰도 Cronbach's α .86으로 산출되었다.

<표 Ⅲ-2> 의사소통 유형 하위영역과 신뢰도

구분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개방형 의사소통	10	1,3,5,7,9,11,13,15,17,19	.85
문제형 의사소통	10	2,4,6,8,10,12,14,16,18,20	.86

2) 다중지능 검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다중지능 검사는 문용린 외(2001)가 개발한 중·고등 학생용 검사지로 총 1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 도구는 각 지능 문항에 대한 선호와 능력정도를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5점을 주며, 8개의 하위영역 점수를 갖게 된다. 총 119문항 중 어떤 문항은 두 가지 지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문항도 있다(예를 들어 63번 문항의 경우 ‘이야기를 만들거나 시나 노랫말을 만든 적이 있습니까’는 음악지능과 언어지능에 포함된 문항) 따라서 전체적으로 활용된 문항은 총 141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 는 .87이며 하위영역별로 <표 III-3>에 나타내었다.

<표 III-3>을 보면 다중지능의 하위영역은 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 자기이해지능, 자연친화지능의 8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악지능의 신뢰도는 .87, 신체운동지능의 신뢰도는 .86,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언어지능, 자기이해지능의 신뢰도는 .84, 대인관계지능의 신뢰도는 .85, 자연친화지능의 신뢰도는 .88이고, 전체 신뢰도는 .87로 나타났다.

<표 III-3> 다중지능 하위영역 및 신뢰도

지능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음악지능	15	1~14, 63	.87
신체운동지능	13	15~27	.86
논리수학지능	20	28~44, 47, 52, 65	.84
공간지능	16	45~59, 32	.84
언어지능	20	60~79	.84
대인관계지능	19	80~97, 66	.85
자기이해지능	25	98~106, 29~31, 35, 37, 43, 48~50, 52, 68~70, 80, 87, 89	.84
자연친화지능	13	107~119	.88
계	141		.87

3.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처리 및 분석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다중지능검사를 설문 조사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성별에 따른 의사소통 유형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성별에 따른 다중지능 하위영역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의사소통유형과 다중지능 하위영역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의사소통 유형이 다중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성별에 따른 의사소통

성별에 따른 의사소통 유형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IV-1>과 같다.

<표 IV-1> 성별에 따른 의사소통

의사소통	성별	n=500	M	SD	df	t	p
개방형 의사소통 (50점)	남	202	33.62	6.72	498	.430	.667
	여	298	33.35	7.06			
문제형 의사소통 (50점)	남	202	24.00	5.96	498	-.942	.347
	여	298	24.54	6.63			

<표 IV-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의사소통 유형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개방형 의사소통 유형과 문제형 의사소통 모두에서 성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2. 성별에 따른 다중지능

성별에 따른 다중지능 하위영역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IV-2>과 같다.

<표 IV-2> 성별에 따른 다중지능

다중지능	성별	n=500	M	SD	df	t	p
음악지능	남자	202	55.31	17.66	498	-5.260***	.000
	여자	298	63.32	16.04			
신체운동지능	남자	202	47.26	16.50	498	2.156*	.032
	여자	298	43.98	16.84			
논리수학지능	남자	202	45.77	15.29	498	1.429	.154
	여자	298	43.87	14.10			
공간지능	남자	202	45.66	16.61	498	-.085	.933
	여자	298	45.78	15.66			
언어지능	남자	202	48.92	16.78	498	-3.219**	.001
	여자	298	53.58	15.22			
대인관계지능	남자	202	57.24	15.89	498	-2.978**	.003
	여자	298	61.29	13.32			
자기이해지능	남자	202	50.66	13.18	498	-.742	.458
	여자	298	51.51	11.24			
자연친화지능	남자	202	42.33	17.92	498	1.671	.095
	여자	298	39.53	18.65			

<표 IV-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성별에 따른 다중지능 하위영역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음악지능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신체운동지능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p < .05$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논리수학지능과 공간지능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언어지능과 대인관계지능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고, 자기이해지능과 자연친화지능에서는 남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종합하면 음악지능은 여자가 남자보다 $p < .001$ 수준에서 언어지능과 대인관계지능은 $p < .01$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운동지능은 $p < .05$ 수준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자기이해지능, 자연친화지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다중지능과의 상관관계

의사소통유형과 다중지능 하위영역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IV-3>과 같다.

<표 IV-3> 의사소통 유형과 다중지능과의 상관관계

(n = 500)

구분	음악 지능	신체 운동 지능	논리 수학 지능	공간 지능	언어 지능	대인 관계 지능	자기 이해 지능	자연 친화 지능
개방형 의사 소통	.169**	.142**	.182**	.044	.165**	.284**	.270**	.064
문제형 의사 소통	.041	.019	-.048	.087	-.011	-1.22**	-.085	.019

<표 IV-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개방형 의사소통은 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 논리수학지능,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 자기이해지능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문제형의사소통과 대인지능 간에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형 의사소통은 다중지능 하위영역 중 대인관계지능($r=.284, p<.01$), 자기 이해지능($r=.270, p<.01$), 논리수학지능($r=.182, p<.01$), 음악지능($r=.169, p<.01$), 언어지능($r=.165, p<.01$), 신체운동지능($r=.142, p<.01$)의 순으로 정적 상관을 보였고, 문제형 의사소통은 다중지능 하위영역 중 대인관계지능에서만 ($r=.122, p<.01$) 뚜렷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개방형 의사소통은 공간지능과 자연친화 지능을 제외한 다중지능 하위영역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문제형 의사소통도 대인지능과 부적의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의사소통 유형이 다중지능에 미치는 영향

의사소통 유형이 다중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IV-4>에 제시하였다.

<표 IV-4> 의사소통 유형이 다중지능에 미치는 영향

(n = 500)

종속 변인	독립변인	B	S.E	β	t	P	F	R ²
음악 지능	(상수)	5.993	8.422		.712	.477		
	개방형의사소통	.985	.151	.397	6.509***	.000	21.631***	.080
	문제형의사소통	.869	.164	.323	5.284***	.000		
신체 운동 지능	(상수)	4.475	8.367		.535	.593		
	개방형의사소통	.759	.150	.313	5.046***	.000	12.826***	.049
	문제형의사소통	.635	.163	.241	3.888***	.000		
논리 수학 지능	(상수)	14.474	7.303		1.982	.048		
	개방형의사소통	.629	.131	.298	4.796***	.000	12.112***	.046
	문제형의사소통	.374	.143	.163	2.625**	.009		
공간 지능	(상수)	14.695	8.083		1.818	.070		
	개방형의사소통	.493	.145	.213	3.394**	.001	7.769**	.030
	문제형의사소통	.598	.158	.238	3.789***	.000		
언어 지능	(상수)	13.978	7.991		1.749	.081		
	개방형의사소통	.735	.144	.318	5.120***	.000	13.140***	.050
	문제형의사소통	.539	.156	.214	3.458**	.001		
대인 관계 지능	(상수)	22.910	7.086		3.233	.001		
	개방형의사소통	.834	.127	.397	6.549***	.000	25.556***	.093
	문제형의사소통	.363	.138	.159	2.626**	.009		
자기 이해 지능	(상수)	16.680	5.870		2.841	.005		
	개방형의사소통	.736	.105	.422	6.974***	.000	26.316***	.096
	문제형의사소통	.406	.115	.214	3.540***	.000		
자연 친화 지능	(상수)	17.750	9.355		1.897	.058		
	개방형의사소통	.413	.168	.156	2.459	.014	3.114*	.012
	문제형의사소통	.374	.183	.129	2.046*	.041		

<표 IV-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개방형 의사소통 유형과 다중지능 하위영역 간의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살펴보면, 자기이해지능($\beta=.422$, $p<.001$)로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음악지능($\beta=.397$, $p<.001$), 대인관계지능($\beta=.397$, $p<.001$), 언어지능($\beta=.318$, $p<.001$), 신체운동지능($\beta=.313$, $p<.001$), 논리수학지능($\beta=.298$, $p<.001$), 공간지능($\beta=.213$, $p<.01$)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문제형 의사소통과 다중지능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음악지능이 ($\beta=.323$, $p<.001$), 신체운동지능($\beta=.241$, $p<.001$), 공간지능($\beta=.238$, $p<.001$) 언어지능

(($\beta = .214$, $p < .01$), 자기이해지능($\beta = .214$, $p < .001$), 논리수학지능($\beta = .163$, $p < .01$), 대인관계지능($\beta = .159$, $p < .01$), 자연친화지능($\beta = .129$, $p < .05$)의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종속변인인 다중지능 각 하위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소통 유형의 상대적 중요성을 R^2 값을 통해 비교해 보면, 자기이해지능이 9.6%, 대인관계지능 9.3%, 음악지능 8.0%, 언어지능 5.0%, 신체지능 4.9%, 논리수학지능 4.6%, 공간지능 3.0%, 자연친화지능 1.2%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개방형 의사소통은 다중지능 하위영역인 8개 영역 중 자연친화지능을 제외한 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 자기이해지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데 개방형 의사소통을 할수록 다중지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문제형 의사소통은 다중지능 8개 영역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가장 많은 설명력을 보이는 하위영역은 자기이해지능과 대인관계지능으로 다중지능 하위영역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지능임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의사소통 유형이 다중지능 하위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고등학교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의사소통이 다중지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중심으로 몇 가지 논의를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의사소통 유형에는 차이가 없어서 가설은 기각되었지만, 이 결과는 선명숙(2011)이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안녕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과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라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평균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와 일치하지만, 백승미(2003)가 연구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아동의 다중지능과의 관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다른 결과를 보인다.

‘부모가 나를 잘 이해하지 못 하신다’고 응답한 자녀의 비율은 아들 23.6%, 딸이 16.7%로 아들이 높게 나타났지만(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생활실태조사, 2011),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어서, 부모-자녀 의사소통시 성별에 따른 부분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성별에 따른 다중지능 하위영역별 차이에서는 음악지능은 여자가 남자보다 $p < .001$ 수준에서, 언어지능과 대인관계지능은 $p < .01$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체운동지능은 $p < .05$ 수준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자기이해지능, 자연친화지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백승미(2003)의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다중지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자는

남자에 비해 음악지능,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본 연구자가 성별에 따른 다중지능의 차이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자는 백승미(2003)는 여자에 비해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신체운동지능만 남자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장영애(2011)는 부모의 양육행동 및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초등학교 아동의 다중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음악지능과 공간지능은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김정희(2004)는 초등학교 학생의 가정환경과 다중지능간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다중지능 평균은 논리수학적 지능은 남자가 높고, 음악적 지능, 공간적 지능, 언어적 지능, 대인지능, 자기이해지능은 여자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부분적으로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황민자(2009)는 고등학생의 다중지능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다중지능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고, 조미경(2003)의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다중지능의 차이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신체운동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은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미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고, 음악지능과 자기이해지능은 여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본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다.

한편 다중지능 하위영역중에 다른 영역에 비해 음악지능, 대인관계지능, 자기이해지능이 다른 다중지능 평균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면 자연친화지능이 다중지능 하위영역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문용린, 김주현, 박은실(2003)은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한 다중지능과 진로의식 발달 연구에서 남녀별 다중지능의 차이를 보면 전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경향을 보이는데, 특히 음악지능에서는 남녀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것과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하면, 본 연구에서는 여자는 음악지능, 공간지능,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 자기이해지능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남자는 여자에 비해 신체운동지능, 논리수학지능, 자연친화지능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서 부분적으로 일치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여자는 음악지능과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고, 남자는 신체운동지능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서 성별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다중지능의 하위영역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성별에 따른 차이점을 이해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다중지능과의 관계에서는 개방형 의사소통은 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 논리수학지능,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 자기이해지능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문제형의사소통과 대인지능 간에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형 의사소통과 다중지능과의 상관이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대인관계지능, 자기이해지능, 논리수학지능, 음악지능, 언어지능, 신체운동지능의 순으로 나타났고 $p < .01$ 수준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문제형 의사소통은 대인지능에서만 $p < .01$ 수준의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개방형 의사소통은 공간지능과 자연친화지능을 제외한 다중지능 하위영역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문제형 의사소통도 대인지능과 부적적인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백승미(2003)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아동의 다중지능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과 다중지능과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의사소통과 다중지능의 모든 하위영역들은 개방형 의사소통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문제형 의사소통과는 부적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권정애(2007)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다중지능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다중지능과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다중지능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긍정형 의사소통과 다중지능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정형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다중지능과 부적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본 연구의 결과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다중지능의 개발을 위해서 부모-자녀간의 개방형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의사소통 유형이 고등학생의 다중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개방형 의사소통은 다중지능 하위영역인 8개 영역 중 자연친화지능을 제외한 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 자기이해지능에 영향을 미치는데 개방형 의사소통을 할수록 다중지능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문제형 의사소통은 다중지능 8개 영역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백승미(2003)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아동의 다중지능과의 관계에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논리수학지능,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본 연구의 결과와는 순서에서 다른 결과를 보였다.

권정애(2007)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다중지능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다중지능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검증한 결과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자녀간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개인이해지능,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대인관계지능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 자기이해지능, 음악지능 및 대인관계지능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과 부분적으로 일치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은 다중지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능이 유전적인 부분과 환경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지능의 발달에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의사소통시 개방적 의사소통으로 해야 할 것이다.

다중지능검사를 분석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자기이해과 대인관계지능이다.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 유형이 다중지능에 미치는 영향력 중 가장 높은 설명력을 지니는 자기이해지능과 대인관계지능은 학습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성공적인 삶을 위해 반드시 강점지능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기이해지능은 모든 능력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여겨질 만큼 중요하다. 이 지능은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욕망, 두려움, 재능 등을 잘 다루어 효과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다. 이 지능은 자신의 강점과 능력을 잘 인식하고 활용하여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높게 나타나며, 이 지능이 높은 아이는 대체로 자존감이 높고, 목표의식이 있으며,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의지가 강하다. 또한 대인관계지능은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능력이다. 또한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가족, 학교, 사회생활에서 대인관계를 잘 이끌

어갈 수 있는 대인관계능력은 어릴 때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이 된다는 점 때문에 부모가 어릴 때부터 충분한 애착과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높은 지능을 가질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한다.

위와 같은 논의에 따라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일부 고등학교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다른 연령과 지역으로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는 제한점을 갖고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문 응답자의 정서 상태, 증상 정도가 실제보다 더 크거나 적게 보고할 가능성, 사회적 바람직성에 따른 응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부모의 보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간과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연구의 문제점과 오류를 보완. 배제할 수 있는 더 민감하고 정확한 연구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며, 학생 보고와 부모 보고간의 차이를 비교하여 심층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의사소통 유형이 다중지능하위영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인과 관계를 위한 규명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권미경, 홍경자(1993).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청소년 자녀의 자기표현과의 관계 : 일반 청소년 입원청소년을 대상으로. **간호학논문집**, 7(1), 61-85.
- 권정애(2007).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다중지능간의 관계**.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원(2000).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발달과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충북가정학회지)**.
- 김경희(2003). **초등학교 학생의 가정환경과 다중지능과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영(2009).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자아탄력성 및 대인관계 성향의 관계**.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우(2003).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한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영(2006). 고등학생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중지능 구성요소. **중등교육 연구**, 54(3). 27-50.
- 김미호(1989). **부모, 학동기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녀의 사회적 행동 특성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정(2009). **초등학생의 다중지능과 학교생활 및 성취동기와의 관계**.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자(2002).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 감성지능과의 관계 연구**. 목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미, 심희옥(2001). 부모와의 의사소통, 교사와의 관계 및 교내외 활동이 청소년의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1(4), 159-175.
- 김옥숙(2001).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성숙도 의관계**. 서강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태(2000). **가족치료이론**. 학지사

- 김정희(2004). **초등학교 학생의 가정환경과 다중지능간의 관계**.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1987). **어머니와 자녀간의 커뮤니케이션 형태와 자녀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주현, 신명희(2002). 과학영재의 지능특성연구, **연세과학교육**, 50, 77-92.
- 김향자(2001). **가정환경 변인과 유아의 다중지능과의 관계**.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수(2003). **신교육심리학**. 서울 : 한울출판사
- 남현주(1997).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논리 사고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성림(2004). 초등수학영재의 다중지능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수학교육학회지 시리즈 A:수학교육**, 43(1), 35-50.
- 류숙희(1996). **지각된 다중지능의 집단차와 IQ 및 성적과의 관계 분석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용린, 김주현, 박은실(2003). **다중지능과 진로의식발달연구 :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도덕심리연구실.
- 민경애(2009). **다중지능이론에 근거한 진로탐색 집단상담이 잠재비행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희망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윤기(2009).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자아탄력성 및 대인관계 성향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하영(1991). **청소년 비행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용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 민혜영(1990). **Circumplex Model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 청소년 자녀를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숙(1994). **심리평가의 실제**. 하나의학사.
- 박현진(2003). **초등학생의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아존중감 및 학업 성적과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문희(1992).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대인관계 성향에 관한**

- 연구. 동아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경숙, 권용신(2004).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6(2), 87-99.
- 백승미(2003).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아동의 다중지능과의 관계**.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선명숙(2011). **고등학생의 지각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안녕감, 자기효능감, 자아 탄력성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성자(1985). **한국 부부간의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9 p.45-72.
- 송미령, 안혜영, 김은경(2002). 청소년의 스트레스 · 어머니-자녀 의사소통과 삶의 질과의 관계. **아동간호학회지**, 8(2), 141-151.
- 신수정(1994).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전사춘기 자녀를 중심으로**. 건국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혜영(1993). **고교생의 대인관계성향과 부모-자녀 대화개방도 간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선희, 김선영(2004). 가족의 건강성과 양육효능감 및 사회적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2(12), 219-230.
- 연문희(1992). **청소년의 이해와 지도**. 서울: 창학사
- 유영주(2004). **새로운 가족학**. 서울 : 신정.
- 이성자(2001).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중학생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과의 관계**. 한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숙, 김정옥(200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2), 133-159.
- 이영환(2002).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자녀간의 의사소통 및 신뢰감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미래유아교육학회지** 8. p. 103-119.
- 이은희, 서미정, 최태산(2000). 남녀 청소년들의 우울에 미치는 학교스트레스 , 자아 존중감,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부모의 내재적 지원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2(2), 69-84.
- 이인숙(1997).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녀의 감성지능과의 관계**. 공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우, 김규원(1989).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와의 커뮤니케이션유형 및 만족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3).
- 이진용(1990). 어머니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자기존중감과의 관계 연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창숙(1987). 한국 남편과 부인들의 커뮤니케이션 유형 분류에 대한 연구. 경희 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영숙(2004). 영재유아와 일반유아의 다중지능과 부모의 다중지능 및 교육수준과의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8(3), 111-136.
- 장영애(2011). 부모의 양육행동 및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초등학교 아동의 다중지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 정명희(1998).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 문제행동과의 관계 연구 :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성심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유미, 김득성(1998). 청소년의 환경적변인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부산시내 실업계 여고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3), 31-45.
- 정은영, 신혜원(2009). 가족체계에 따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3), 239-267.
-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2011). 2011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생활 실태 조사.
- 조덕제(2001). 아동이 인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다중지능영역과의 관계. 경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미경(2003).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다중지능에 대한 차이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정순(2007). 초·중등 수학 과학 정보영재의 다중지능 비교.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기선(1985). 커뮤니케이션론. 서울 : 나남.
- 홍은정(2004). 부모 양육태도와 아동의 다중지능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경북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민자(2009). 고등학생의 다중지능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부산대학교 교육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최홍규(2000). 아버지와 자녀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자녀의 인성특성과의 관계.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lexander, J. F. (1973). Defensive and supportive communication in normal and deviant famil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Psychology*, 40, 223-231.
- Barnes, H & Olson, D. H.(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Basic Books. 김명희, 이경희 역(1998). *다중지능의 이론과 실제*. 서울 : 양서원.
- Beaubien, C. O. (1970). *Parent Adolescent Communication Style Pennsylvania Univ. Ph. D.*
- Berkowitz(1992). *Family Communication and Children's Morality.*
- Birch. S. H, & Ladd, G. W. (1997).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 Cooley, C, H(1902).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Scribner.
- Deacon. R. E. Firebaugh. F. M. (1975). *Home management context and concepts. Boston : Houghton Mifflin Co.* 가정관리학 연구회 역 (1991). 가족자원 관리 : 원리와 적용. 한울출판사.
- Demo, D. H. (1987). *Family reactions and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p. 705-715.
- Franklin, Diane; Bankston, Karen. (2000). *To Listen and To Learn : Exploring Opportunities To Encourage Family Communication.* Wisconsin Clearinghouse for Prevention Resources. ERIC Reports, ED442902.
- Gardner, H(1999). *Intelligence reframed*. 문용린 역(2001). 다중지능 : 인간지능의 새로운 이해. 김영사.
- Gardner, H(1997). *Extraordinary minds*. NY: Basic Books.
- Gardner, H(1993). *Multiple intelligences : The Theory in practice*. N Y : Basic Books. 이경희역(1993). 마음의 틀. 서울 : 문음사.
- Gordon, Thomas (1975). *P. E. T.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 The tested new way to raise responsible children*. Hastings House.
- Gross. I. H. Grandall. E.W. & Knoll. M. M.(1980). *Management for Morden*

- Family(5th Ed)*. Englewood Cliffe. NJ Prentice-Hall.
- Hawkins. J. Weisberg, C. & Ray, D. (1980). Spouse differences in style : *Preference, perception,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 Newlon, Betty J.; Lyle, Julie Ann(1989). *Mother-Daughter Communication and the Daughter's Perceived Self-Esteem*. ERIC Reports, ED301831.
- Price, Dorothy Z. (1973). *Relationship of Decision Styles and Self-Actualiza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2, 1. ERIC Reports, EJ092371.
- Rohner, R. P.(1991). *Handbook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Storrs: Centre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 Rueter, Martha A. & Conger. Rand D. (1995). *Antecedents of Parent-Adolescent Disagreem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57. ERIC Reports, EJ506221.
- Satir, Virginia(1964). *Conjoint Family Therapy, Palo Alto, California*: Science & Behavior Books.
- Thomas. EJ. (1977). *Marital Communication and decision making*. New York : The Free Press.
- Venent, J. P, Friedman, L. C, Nugent, J. & Messerly, L. (1979). *Demand characteristics. in observations of Marital Interac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Abstract>

The Effect of Type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on Multiple Intelligence of High School Student

Sung, Young-shil

Major in Counsel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eong-bong

This study is aimed at figuring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child communication type and multiple intelligence, and the effect of communication type on subareas of multiple intelligence. For this, I have set research questions below.

First, is there any difference on type of communication between genders?

Second, is there any difference in subareas of multiple intelligence between genders?

Third, is there any relationship between parent-child communication type and multiple intelligence of high school student?

Fourth, does parent-child communication type affect on multiple intelligence of high school student?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500 high school students in Jeju Province, and Barnes & Olson(1982)'s PACI: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translated by Kim(1990) was used as a measurement of communication. Test for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 by Moon et al.(2001) was used for multiple intelligence test.

Collected data was conducted independent sample t-test,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18.0 program.

The results found are shown below.

First, there was no difference in type of communication between genders, though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subareas of multiple intelligence. Boys scored higher than girls only in bodily-kinesthetic intelligence, whereas girls were higher in music-rhythmic, verbal-linguistics, and interpersonal intelligence.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shown in logical-mathematical, visual/spatial, intrapersonal, and naturalist intelligence between genders.

Second, it is shown that open communication has positive correlation with music-rhythmic, bodily-kinesthetic, logical-mathematical, verbal-linguistics, interpersonal and intrapersonal intelligence. And problem communication is shown to have negative correlation with interpersonal intelligence.

Third, open communication is shown to have effect on all of the 8 subareas of multiple intelligence except natural intelligence, presenting the more frequently open communication is used, the higher the level of

the multiple intelligence is. And it is also shown that problem communication affects all of the 8 subareas of multiple communication.

This study presents that type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has significant effect on subareas of multiple intelligence. Considering the effect of inheritance and environment on multiple intelligence, parents should think of the effect of their behavior on multiple intelligence, and use open communication.

질문지

안녕하세요?

이 질문지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다중지능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지입니다.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편안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라며, 한 문항도 빠짐없이 기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답된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 검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 7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성영실

◆ 자신의 해당란에 V표를 해 주십시오.

1. 성 별 : 남 () 여 ()
2. 학 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 다음은 여러분과 부모님간의 의사소통 정보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지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해당란에 V표를 해 주십시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소신을 부모님과 거리낌 없이 의논할 수 있다.					
2	부모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가끔 믿기가 어렵다.					
3	부모님은 늘 내 말씀을 귀담아 들어 주신다.					
4	내가 원하는 바를 부모님께 부탁드리려면 겁이 난다.					
5	부모님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감정이 어떤지 잘 아신다.					
6	부모님은 나보고 어떤 말을 하느니 차라리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신다.					
7	나는 부모님과 대화를 하면 만족스럽다.					
8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는 부모님께 차라리 아무 말씀 말고 가만히 계시라고 한다.					
9	나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부모님에게 모두 말씀드릴 수 있다.					
10	부모님께 말씀드리려면 조심스럽고 어렵다.					
11	마음놓고 부모님께 어리광을 부린다.					
12	부모님과 대화를 나눌 땐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것이 더욱 마음 편하다.					
13	내 질문에 부모님은 솔직하게 대답을 해 주신다.					
14	나에게는 부모님과 의논할 수 없는 비밀이 많다.					
15	부모님은 내 의견을 이해해 주시려고 애쓰신다.					
16	나는 부모님의 잔소리 때문에 귀찮다.					
17	나는 부모님과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 의논을 잘 한다.					
18	부모님은 나로 인해 화가 나시면 모욕(창피)을 주신다.					
19	나의 느낌을 부모님에게 솔직하게 잘 털어 놓는다.					
20	무슨 일에 대한 내 진심을 부모님께 그대로 말씀드릴 수 없다.					

◆ 다중지능 검사

자신에게 알맞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V 표시를 해주십시오.

두 가지 이상을 묻는 질문에서는 한 가지만 해당되어도 그에 맞는 것으로 답하시면 됩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어렸을 때, 음악이나 음악시간을 좋아하는 편이었습니까?					
2	악기 연주를 배운 적이 있습니까?					
3	노래를 부를 때, 음정에 맞추어 부를 수 있습니까?					
4	다른 사람과 함께 노래할 때, 화음을 맞춰 부를 수 있습니까?					
5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악기연주나 음악서클 또는 음악과 관련된 동호회에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까?					
6	평소에 음악을 많이 듣는 편입니까?					
7	편곡이나 작곡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8	혼자 있을 때, 손가락 장단을 맞추거나 노래를 흥얼거린 적이 있습니까?					
9	머리 속에서 좋아하는 가락이 자주 떠오릅니까?					
10	음악과 관련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11	노래를 부르거나 배울 때 리듬감이 있는 편입니까?					
12	특정 악기의 소리나 특정 음악 그룹의 음악을 좋아합니까?					
13	자신에게 숨겨진 음악적 재능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14	일하거나 공부할 때 또는 쉴 때 음악을 자주 듣습니까?					
15	다른 과목보다 체육이나 신체적 활동과 관련된 과목을 더 좋아하는 편입니까?					
16	어렸을 때, 운동을 자주 하는 편이었습니까?					
17	학교에서 무용반이나 연극반에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까?					
18	체육선생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운동하기에 좋은 신체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나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19	태권도, 수영, 테니스, 볼링 등과 같은 운동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	학교 수업시간 외에 다른 운동 팀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21	평소에 운동이나 다른 신체활동을 자주 합니까?					
22	카드 섞기나 마술을 부리는 것과 같은 손을 사용해서 하는 활동을 잘 합니까?					
23	바느질, 모형 만들기, 비행기 날리기, 글씨쓰기와 같은 정교한 작업을 잘 합니까?					
24	기계 다루기나 조립 또는 요리나 조각하는 것과 같이 손을 사용해서 하는 활동을 좋아합니까?					
25	가족이나, 친구, 선생님 등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나 몸짓을 잘 흉내 냅니까?					
26	무용이나 체조를 잘 합니까?					
27	설명을 듣는 것보다 직접 도구를 사용할 때 더 쉽게 배웁니까?					
28	어렸을 때, 덧셈, 뺄셈, 곱셈과 나눗셈 같은 산수를 쉽게 배웠습니까?					
29	산수나 수학에 특별히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30	어려운 수학 문제를 잘 풀니까?					
31	과학을 공부하거나 과학문제를 푸는 데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32	장기나 바둑을 잘합니까?					
33	카드놀이나 퍼즐게임을 잘합니까?					
34	십자말풀이나 낱말 맞추기와 같은 게임을 자주 합니까?					
35	용돈 기입장을 쓰는 등 짜임새 있게 용돈을 관리하는 편입니까?					
36	전화번호나 주소에 나오는 숫자들을 잘 기억합니까?					
37	암산을 잘 합니까?					
38	사물이나 주변 일에 호기심이 많아서 “왜”, “어떻게”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까?					
39	집안문제 및 장래의 진로, 인생설계와 관련된 장기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방법을 잘 생각해 냅니까?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40	물고기, 동물, 식물 또는 별이나 혹성 같은 자연현상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41	골동품, 우표, 야구 등 어떤 주제에 대해 깊이 알기 위해 관련된 물건이나 자료를 수집하거나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까?					
42	계산이 많이 필요한 일이나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일을 잘 합니까?					
43	운동경기의 점수를 매기거나 예산을 짜는 것과 같이 숫자 다루는 일을 좋아합니까?					
44	상식이 풍부해서 사회적인 활동을 계획하거나 집을 수리하거나 고장 난 기계를 고치는 일을 잘 합니까?					
45	어렸을 때 블록 쌓기나 구슬, 공기놀이, 줄넘기 등을 하면서 놀았습니까?					
46	기계설계, 머리손질, 목공예, 예술적인 활동과 같은 활동을 잘 합니까?					
47	방을 꾸미거나 정돈하는 일, 가구를 배치하는 일을 잘 합니까?					
48	빈 공간에 책상이나 가구를 배치할 때 공간 크기에 맞추어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습니까?					
49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잘 찾습니까?					
50	지도를 보면 찾고자 하는 길을 잘 찾습니까?					
51	라디오나 텔레비전 등과 같은 기계나 가구를 잘 고칩니까?					
52	장난감, 퍼즐, 전자제품들을 쉽게 조립할 수 있습니까?					
53	바느질, 목공일, 뜨개질 같은 일을 할 때,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만든 적이 있습니까?					
54	미술시간이 아니어도 수시로 그림을 그립니까?					
55	장식하기, 정원 가꾸기, 꽃꽂이에 남다른 재주가 있습니까?					
56	낯선 곳에서도 방향 감각이 있습니까?					
57	다트게임이나 활쏘기, 볼링 같은 놀이를 잘 합니까?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58	당신의 생각을 종종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스케치를 해가며 설명하는 편입니까?					
59	독특한 디자인을 만들거나 독특한 디자인의 옷을 입을 것을 좋아합니까?					
60	영화나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61	사람이나 사물에게 재미있는 별명을 지어주는 것을 좋아합니까?					
62	말할 때 다양한 어휘나 문구를 사용하십니까?					
63	이야기를 만들거나 시나 노랫말을 지은 적이 있습니까?					
64	다른 사람들과 말할 때, 설득력 있게 잘 말하는 편입니까?					
65	사람들 다루거나 다른 사람과 협상하는 일을 잘 합니까?					
66	사람들을 설득해서 당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행동하도록 할 수 있습니까?					
67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거나 이야기 해본 적이 있습니까?					
68	다른 사람들을 다루거나 감독하는 일을 잘 합니까?					
69	뉴스, 종교, 스포츠 또는 가정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70	다른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71	단어의 올바른 의미나 사용법을 알기 위해 사전을 찾거나 다른 사람과 논쟁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72	말을 잘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말해보라”는 요청을 받는 적이 있습니까?					
73	다른 사람의 말투나 특유한 언어습관을 잘 흉내 냅니까?					
74	독후감이나 감상문 등 쓰기 과제를 잘 합니까?					
75	편지를 잘 쓸 수 있습니까?					
76	읽기를 잘하거나 국어 성적이 좋습니까?					
77	해야 할 일을 메모해두는 편입니까?					
78	어휘력이 풍부합니까?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79	정확하고 적절한 단어를 선택해서 분명하게 말하는 편입니까?					
80	한번 사귀 친구와 오랫동안 잘 지내는 편입니까?					
81	가족이나 친구 사이를 부드럽게 만드는 일을 잘 합니까?					
82	학교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 “지도자”적 역할(예를 들어 반장)을 한 적이 있습니까?					
83	씨클이나 동호회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84	다른 사람의 감정, 희망, 요구를 쉽게 이해하는 편입니까?					
85	아픈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 또는 어려운 친구를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86	친구나 가족들이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거나 조언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87	다른 사람의 ‘성격’을 잘 파악하는 편입니까?					
88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편하게 하는지를 잘 아는 편입니까?					
89	친구의 따끔한 충고를 잘 받아들이는 편입니까?					
90	또래들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합니까?					
91	친구의 생각과 감정을 잘 이해하는 편입니까?					
92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는 편입니까?					
93	어린 아이들을 잘 다루는 편입니까?					
94	가르치거나 지도하거나 상담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95	나중에 판매, 접수, 자원봉사, 경찰같이 여러 사람을 접하는 일을 잘 할 것 같습니까?					
96	혼자 일하는 것보다 함께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97	사람들 사이에 생긴 문제나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독특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까?					
98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며 인생을 보낼 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99	자신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자신의 기분을 잘 통제할 수 있습니까?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00	학교나 집에서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십니까?					
101	개인적으로 중요한 선택에 대해 의사 결정을 잘 하는 편입니까?					
102	자신이 가진 재능, 흥미, 성격을 고려해서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는 편입니까?					
103	자신이 어떤 것을 잘 하는지 알고, 그러한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는 편입니까?					
104	실패나 좌절했을 때 스스로에게 화를 내십니까?					
105	‘자기발전’에 관심이 많습니까?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학원을 다니거나 성공한 사람의 책이나 잡지를 읽은 적이 있습니까?					
106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는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독특한 방식을 찾곤 합니까?					
107	애완동물을 길러본 적이 있습니까?					
108	동물들을 돌보거나 잘 이해합니까?					
109	애완동물을 훈련시키거나 야생동물에 대해 공부해본 적이 있습니까?					
110	나중에 농장이나 동물을 키우거나 수의사가 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111	여러 동물들의 특성, 습성의 차이를 쉽게 이해합니까?					
112	애완동물이나 다른 동물의 상태(임신이나 건강 등)를 잘 파악하는 편입니까?					
113	구름, 날씨, 동식물 같은 자연을 관찰하고 공부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114	식물을 키우거나 정원을 관리하는 것을 잘 합니까?					
115	식물들 간의 차이를 잘 알고 있습니까?					
116	화학, 전기, 물리학 또는 지리학 같은 자연 에너지 체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117	캠핑이나 등산, 또는 자연물들을 관찰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118	자연경관을 찍고 자연에 대한 관찰일지를 쓰거나 풍경화를 그린 적이 있습니까?					
119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까?					